

일련 정종의 그릇된 주장을 파헤치다

배경

일련정종은 일본의 시즈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니치렌 불법의 교단으로써 미국에 여섯개의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창가 학회는 1991년 일련정종과 분리되기 전까지 일련정종의 관련기관이었습니다.

창가학회는 그 설립 당시부터 일련정종을 보호하는 것에 진력해 왔습니다. 창가학회는 세계2차대전 시절부터 가난한 승려들을 도우며 350개 이상의 절을 공양해 왔습니다.

묘법 유포에 진력하는 신도단체인 창가학회와 정종을 유지하는 승려들 사이에 가끔 분열이 있기도 했었지만 창가학회는 신도와 승려의 조화로운 화합을 발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일부 승려들이 공개적으로 창가학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창가학회 회원들에게 일련 정종의 교구로 등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창가학회의 노력으로 승려와 창가학회의 관계는 다시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그 당시 일련 정종의 법주였던 아베 닛겐은 창가학회를 해체시키고 학회의 회원들을 컨트롤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해 12월, 일련정종은 SGI이케다 회장을 포함한 창가 학회 간부들을 일련정종의 신도 단체에서의 역직에서부터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법률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창가학회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였으나, 일련정종은 거부하였습니다.

1991년, 일련 정종은 니치렌 불법에 있어서 본종의 대사인 어본존을 새롭게 입신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같은 해 11월, 일련 정종은 일방적으로 창가학회를 파문합니다.

1993년, 창가학회는 전 세계 멤버들에게 어본존을 수여를 결정합니다. 본 어본존은 18세기의 니치렌 불법을 재건한 니치칸 상인께서 서시한 어본존을 근본으로 한 것입니다.

창가학회가 어본존을 수여하고자 하는 이 결정만 보더라도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에 직결하여 세계 광선유포를 달성해 가는 신도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부터, SGI는 니치렌 불법의 전 세계 유포에 더욱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일련 정종 승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묘법유포의 결과는 SGI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과 마음에 그대로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련 정종 승려의 잘못을 파헤치다.

1) 광선유포를 파괴하려는 계획

1991년 11월, 일련 정종은 한통의 “제명서”를 창가학회로 보냈고, 그 제명서에서 일련정종은 창가학회가 법주를 따르지 않았고 이것은 일련 정종에 속한 신도단체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에 기반하여 볼 때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선유포, 즉 세계적인 불법 유포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수행하는 모든 신양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전부 통하여 볼 때, 항상 “광선유포의 대원”(생사일대시행록초 1337쪽) 을 수행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어의구전에서 “대원이란 법화홍통이나라”(어의구전 상4권148p)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기학회의 설립에서부터 창기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원(大願)”을 우리의 것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진실한 행복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니치렌 불법 흥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창기학회를 파괴하려는 일련 정종 승려의 시도는 광선유포를 파괴하려는 대적이며, 이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근본 마음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2) 법주의 절대권력을 인정

일련 정종이 주장하기를, “법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엄격한 복종”(대어본존,특별판Ⅲ, “일련 정종의 바른 신심의 방법”, 일련 정종 종교 사무소 발행, 13p)에 따르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니치렌 대성인과 그가 가장 신뢰하셨던 제자인 니코상인의 글 어디에서도 법주에 대한 절대 복종이나 불계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법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일련 정종의 주장은 니치렌 불법과 완전히 위배됩니다.

닛코 상인의 26개 유계치문에서,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樞)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어서전집 1618쪽, 리빙부디즘 1998년 4월호 23쪽)라고 하셨습니다. 닛코 상인의 강한 말씀은 명확하게 법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파절하고 있습니다.

3) 묘법의 정통성을 파괴

일련 정종은 묘법의 정통성에 대해서 틀린 관점을 주장합니다. 즉, 니치렌 대성인의 내적인 불성과 묘법 그 자체는 오로지 법주만이 가지고 있고, 다음 법주를 임명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이 법주에서 다음 법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일련 정종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묘법의 혈맥”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근본”이라고 합니다(일련 정종 월간 2005년 12월호, 19쪽).

일련 정종 승려들은 니치렌 불법의 신앙자들은 “묘법의 혈맥을 수여받은 최고 법주의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니치렌 불법의 근본 가르침에 정반대로 위배됩니다. 니치렌 대성인에게서는, 묘법의 혈맥은 남묘호렌계교이며, “생사일대사(生死大事)의 혈맥(血脈)이라 함은 소위 묘법연화경 이것이니라.”(생사일대사혈맥초 1336쪽)라고 하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에게서는 절대로 남묘호렌계교의 묘법이 오직 선택된 소수 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사일대사혈맥초”에서 “일본국의 일체 중생에게 범화경을 받게 하여 성불하는 혈맥을 있게 해 주려고 하는데”(어서전집 1337쪽)라고 하셨습니다. 묘법의 혈맥은 남묘호렌계교의 묘법과 어본존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편지에서, 대성인에게서는 “신심의 혈맥이 없이는 범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하니라”(1338쪽)라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신심을 통해서만 묘법의 혈맥을 가질 수 있으며, 묘법의 혈맥 상승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신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봤을 때, 묘법의 혈맥이라는 것은 니치렌 불법에서 정확한 신심의 다른 말입니다. 어본존 앞에서 우리가 창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대성인의 근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심을 통한 공덕을 받을 수도 없고 묘법 혈맥 상승도 없을 것입니다.

4) 종교의식과 형식의 오용

일련 정종은 장례식, 추모 의식, 불법자의 사후 이름, 추모 기념 패 증정과 같은 다양한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신도들을 경제적인 면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일련 정종 승려들이 수행해 온 장례식과 추모 의식에 대해서 니치렌 대성인에게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니치렌 대성인 사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일련 정종 승려들 속에서 그런 장례 절차가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은 고인의 성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려들이 주관하는 장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니치렌 대성인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성불은 오로지 그들이 살아 생전의 신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에게 보내신 편지 속에서, “과거의 지부(慈悲)의 존령(尊靈)은 존생(存生)에 남묘호런계교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신성 불의 사람이니라”(우쓰부시부인답서 1423쪽) 라고 하셨습니다.

승려가 고인의 성불을 위해서 반드시 장례식을 집행해야 한다는 일련정종의 주장은 니치렌 불법을 왜곡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5) 신도 회원들에 대한 차별 대우

일련 정종은 근본적으로 승려는 신도들보다 니치렌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면에서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지위가 승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려들을 스승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련 정종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니치렌 대성인과 닛고 상인께서는 절대로 지위에 따라서 성불이 결정된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승려와 신도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정의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성인께서는 승려와 신도 근본적으로 모두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남녀 승니(僧尼)를 가리지 말지어다. 법화경을 수지하신 사람은 일체중생의 주인(主人)이라고 부치는 보셨느니라.”(시조깡고전부인답서 1134쪽).

일련 정종이 신도 회원을 차별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불계에 이르게 한다는 불법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부패로 빠져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승려 제자들에게 수수하고 검소한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고 소욕지족(小欲知足)인 승야말로 진실한 승이로다”(소아전답서 1056쪽).

하지만 이전의 법주인 닛겐과 각 지방 절의 주지를 포함하여 많은 일련 정종 승려들은 사치스러운 생활 스타일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엄격하게 그러한 부패한 승려를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이니라.”(마쓰노전답서 1386쪽), “식법아귀(食法餓鬼)라고 함은”(시조깡고전어서 1111쪽) 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맞서는 것이 바로 진실한 불법자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련 정종의 승려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세계 광포를 파괴하려는 악의에 찬 행동을 그냥 넘긴다면,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승려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비심도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련 정종의 그릇된 주장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니치렌 불법 수행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광포라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원을 우리 것으로 해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속에 내재된 불계의 생명, 즉 니치렌 대성인께서 사람들의 박해와 비방을 이겨내심으로써 나타내셨던 위대한 생명 경애인 불계를 우리속에서 끄집어 내어 갈 수 있습니다.